

일주문

해국 스님 선문화 법회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은 8월 18~19일 영천 백음암에서 간화선 특강을 개최한다.

용주사 금강경, 육조단경 경전 강좌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9월 3일부터 2012년 2월 25일까지 6개월간 매주 토요일 <금강경>, <육조단경> 경전강좌를 개최한다.

월정사 참선 수련법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8월 13~17일 일반인 대상 참선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미산 스님, 우란분절 특별법회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8월 12일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우란분절 특별법회에서 법문했다.

맑고향기롭게 승가원 봉사활동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현장 스님은 8월 21일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서 장애아동과 여름물놀이 봉사활동을 펼친다.

세계유산 교육프로그램 개최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8월 12일 세계유산센터교육프로그램 특강을 개최했다.

교수불자연합회 하계해외성지순례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8월 17~20일 인도 보타산으로 하계해외성지순례를 진행한다.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8월 24일~9월 21일까지 자원봉사단 5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법과 상담법 등을 교육한다.

수불 스님, 동국대 국제선원장 위촉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8월 10일 동국대 국제선원장으로 위촉됐다. 수불 스님은 종립학교 선센터 설립의 원력으로 지난 5월 동국대에 국제선센터 건립 기금 50억원 지원을 약속하며 약정액의 일부인 20억원을 학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국제선원 개원식은 8월 말 봉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자성과 쇄신 결사, 요건부터 누락

동국대 보광 스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희서 강연

“자성과 쇄신 결사 명칭부터 잘못돼, 결사의 방향이 결사 이름이 돼서야.”
동국대 선학과 보광 스님(사진)은 8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무기관 조희서에서 ‘신앙 결사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는 종단 승규의 문란이 가져온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자기 성찰과 자정운동이며, 종도의 무사안일한 출가정신 상실과 불교의 시대적인 사회인식 변화 요구에 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영산재를 예로 들며, “전통문화는 조계종 스스로가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의경전’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조계종은 정화 이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제는 전통문화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광 스님은 결사의 요건으로 ▷소의경전 ▷결사명칭 ▷회주 ▷결사청규 ▷결사문 ▷결사대중 ▷결사역할 분담 ▷신행법 ▷결사제정 ▷결사실천의 확인점검 등을 지목했다. 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의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며 지적했다. 특히 대중이 함께 실천할 신앙생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보광 스님은 결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의경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계 NGO활동이 많아졌다”면서 “소의경전이 없으면 시민단체에 이용당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통일 환경 등 사회운동을 할 때 부처님 교리와 사상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광 스

님은 “호국불교를 주창했던 사명 스님은 <법화경>을 중시했고, 항상 품에 호신불을 지니고 다니며 염불했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옛 스님들은 사찰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잘 때에도 불감을 지니고 다니며 염불을 했다”고도 말했다. 보광 스님은 “자성과 쇄신의 결사는 결사의 방향이지 명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심인물인 회주가 없다” “결사에 필요한 청규도, 결사의 정신이 드러난 결사문도 없다” “결사참여자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회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결사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사진제공=회계사 홍보팀

獨가톨릭 수사, 불교문화 체험

독일의 카톨릭 수도자들이 한국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해 눈길을 끈다. 크리스티안 테무 수사신부를 비롯한 베네딕도 수도회 소속 독일인 수사 8명은 8월 10일 회계사에서 3박 4일간 불교 예절과 참선법 등을 익혔다.

주지 수암 스님과 진행한 차담에서 수암 스님은 수사들에게 “불교의 근본 핵심은 수행을 통해 절대 자유를 상징하는 자아를 찾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는 내용의 화두를 던졌다. 이상연 기자

“내 발자국이 지금의 나를 증명”

선거 앞두고 돈봉투 파문

불국토 이사장 범산 스님

내년에 있을 범어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말사주지 스님들을 상대로 돈봉투가 돌아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의 당사자는 범산 스님(재단법인 불국토 이사장·사진)이다. 스님은 300만원씩을 말사주지 스님들에게 건넸다. 100만원은 백중을 맞아 낸 대중공양금으로, 200만원은 ‘기축생 이범산 본사 주지 당선 발원’을 적은 문구와 함께 전달했다.

범산 스님은 8월 8일 전화통화에서 “내가 기도비를 올린 것은 순수한 뜻이었다. 축원을 해달라는 것이지 투표에서 나를 찍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범어사 주지가 되고자 발원해 여러 도량의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며 “내가 샀던 생각으로 범어사 주지를 하려 한다면 꼭 떨어지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산 스님은 자신의 기도비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범산 스님은 범어사에 승가대학을 만들고, 부산지역에서 사회복



지를 실천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스님은 “부산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불국토가 1호이지 않느냐”며 “내가 돈봉투나 돌리는 인물이었다면 그동안 승가교육이나 복지에 전념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동안 내 발자국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산 스님은 “기도비가 어느 선이 적정인지 다시 생각해서 부산의 모든 도량에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기도도는 내 인생에서도 뜻 깊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박지원 기자

대중의 벗으로 삶의 에너지 전할 터

홍보대사 김태곤 박사

“경제인불자연합회는 사회통합과 소통을 이끌어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를 다할 것입니다.”

올해로 1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회장 구자선, 이하 경불련) 홍보대사 김태곤 박사가 경불련 홍보에 나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활 철학이었으며 불교는 실용종교이었습니다. 경제인불자연합회는 앞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대중의 심신 치유에 앞장 설 것입니다. 대중적인 음악은 불교를 알리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불자 경제인들이 대중의 벗이 되고 삶에 에너지를 전하는 문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경불련 부총재 광욱 스님(전국 비구니회 부회장)의 추천으로 홍보대사로 임명된 김태곤 박사는 “실크로드의 상인(商人)들이 만든 상로(商路)였지만 서방으로부터 불교나 이슬람교 등 문화와 문물 교류의 장이 됐다. 경불련의 활동이 실크로드 상인과 같을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통한 포교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치유예술, 대체의학 등의 전문가로 활동 중인 그는 “부처님 법



을 바탕으로 정신과 육체의 조화,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김태곤 박사는 공주영성정보대학 대중음악과 학과장, 전주대 대체의학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필리핀 국립 이리스트 대학 상담학과 학과장으로 있다. 김 박사는 노래 ‘송학사’ ‘망부석’으로 MBC 10대 가수 신인상을 수상하고 수화노래 ‘아아 우지마라’로 KBS 세계 가요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 개막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도권)는 8월 7일 제11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다례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문화축제에는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군위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 장곡 군위군수, 김제명 10교구 신도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문화축제에서는 산사음악회와 뮤지컬 수로부인 공연, 대동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야간에는 일연 삼국유사 문화의 밤 행사가 펼쳐졌다.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는 8월 28일 삼국유사 골든벨, 10월 15일 삼국유사 마라톤, 11월 24일 삼국유사 학술제와 문학제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선암사 재적승려 분한신고

귀의 삼보하옵고

오랫동안 재적승 승적정리가 이행되지 못하여 중무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하는 제29대 주지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실시하오니 재적스님들께서는 전원 동참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한신고를 필하지 않은 재적승려는 재적승의 자격이 중지됨은 물론 주지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 1. 승적원부 (총무원 발행)
2. 이력서 (사진 부착)
3. 건당확인서 (선암사 합동 건당자에 한함)

신고기간 : 2011년 8월 1일 ~ 8월 31일

접수처 : 선암사 중무소

문의 : 061)754-5247, 061)754-5953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 경담